

文 “지금껏 설문문항에 포함 한적 없어” 朴 “당무회의 통과 명문화 된 시행세칙”

■ 새정치 전대 ‘지지후보 없음’ 유효투표 인정 논란

총선 료 개정 관련해서도 팽팽한 신경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파국 위기는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의 시행세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표 경선 결과에 25% 반영될 예정인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는 답변을 득표율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전대 파국 위기를 촉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반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고, 박지원 후보가 불리하다는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혼전 양상에서 사소한 차이가 당권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기존 시행세칙은 여론조사에서 ‘1번 문재인’, ‘2번 이인영’, ‘3번 박지원’ 외에 ‘4번 지지후보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도 득표수에 포함, 후보자의 득표율을 계산한다. 100명이 여론조사에 참여해 40명이 1번을 찍고 20명이 2번, 30명이 3번, 10명이 4번을 찍는다면 후보 득표율은 기호 순에 따라 40%, 20%, 30%가 된다.

이를 두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지지후보 없음’을 득표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후보가 얻은 득표를 합산이 100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인데 ‘지지 후보 없음’을 넣으면 보정을 해야 하고 그 자체로 표심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문 후보 주장을 반영하면 전체 득표수가 100표가 아닌 90표로 줄어들기 때문에 득표율은 44.4%, 22.2%, 33.3%로 바뀌게 된다. 문 후보 측에서는 역대 전당대회나 당내 경선에서는 ‘지지후보 없음’이라는 설문 문항을 계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박지원 후보 측에서는 유효투표가 아니라 원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당무회의를 통과한 시행세칙에는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해 명확히 득표율로 계산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명문화가 안 됐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미 명문화 된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아니다.

특히 박 후보 측에서는 전대를 목전에 두고 시행세칙을 바꾼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전준위가 투표로 시행세칙을 결정하는 것도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당권 주자들은 총선 료 개정

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이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전준위는 지난 30일 총선 공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국민 50% 이상, 당원 50% 이하’로 결정했다.

당초 전준위는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하’로 변경을 추진했지만, 전날 당헌당규개정 연석회의에서 현행대로 ‘당원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반대를 감안해 이같이 절충안을 낸 것이다.

당시 박지원 후보 진영에서는 “전준위의 총선 공천 료 개정 추진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문 후보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높일 경우,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계에 유리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내 관계자는 “별다른 차이도 없는 조항을 두고 전준위가 투표를 통해 시행세칙을 바꾼 것은 그만큼 당권 구도가 혼전 양상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박 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상식적으로는 문 후보가 설득력이 있지만 과연 이번 사태가 복합할 것인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으로 각각 선출된 유승민 의원과 원유철(맨 왼쪽) 의원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새 원내대표에 유승민·정책위의장 원유철

‘비박’ 84표, ‘친박’ 이주영 65표로 예상박 ‘대승’

당 지도부 비박계 장악... 당·청관계 재정립 불가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범 비박’ (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대구 출신의 3선 유승민 의원이 2일 당선됐다. 또 정책위의장에는 역시 비박계로 간주되는 경기 출신의 4선 중진 원유철 의원이 선출됐다.

‘유승민·원유철 조’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84표를 얻어, 65표를 득표하는 데 그친 ‘이주영·홍문종 조’를 19표 차로 누르고 대승을 거뒀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여권의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그동안 소외됐던 유 의원을 누르고 당선됨에 따라 새누리당 지

도부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비박계’ 성향의 인사들이 장악하게 됐다.

친박계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서부터 잇따라 패배하며 당의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친박계의 지원을 받은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정몽준 전 의원에게 패했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장 경선에서도 비박계 권영진 대구시장이 친박계 서상기·조원진 의원을 꺾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친박계의 지원을 얻은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정의화 의장에게 ‘46표 대 101표’로 패배했다. 나아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도 비주류이자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가 친박 주류 진영의 대표주자인 서청원 최고위원

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날 비박계 인사가 여당의 원내사령탑에 오름에 따라 새누리당과 청와대 간 관계는 친박계인 전임 이완구 원내대표 때와 비교해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9, 10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개혁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정책혼선 해소 등을 당면과제로 안고 출발하게 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통령·청와대·정부와 정말 긴밀하게 긴장된 소통을 하겠다”면서 “무엇이 민심인지,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찰떡같은 공조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분 개각·비서실장 교체 임박

해수부 유기준·국토부 허남식·통일부 권영세 유력

2일 63번째 생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 교체와 부분 개각 등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오늘 끝남에 따라 부분 개각과 정부특보단 인선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청와대 및 내각 후속개편에 대비해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했으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각 및 정부특보단 발표를 늦추었다.

하지만 원내대표 경선이 이날 끝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후속 개편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고삐를 다잡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권 내에선 일단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과 더불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수부 장관에는 해양변호사 출신인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허남식 전 부산시장도 해수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로 동시에 거명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에는 집권 3년차 남북관계 돌고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권영세 주종대사 등 친박계 중량급 인사의 가용성이 나오고 있다.

정부특보단으로는 새누리당 김태환·윤상현 의원과 원외인사인 정진석·이성현·현기환 전 의원 등 친박 인사들이 거명되고 있으며, 친박편향 논란을 자단한다는 의미에서 안경률 전 의원 등 친이계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및 내각 후속개편과 함께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작년 5월 심재륜 전 부산고검

장인 한 방송에 출연해 오대양사건 재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 실장이 수사검사를 바꾸는 인사를 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방기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으로 심 전 고검장 등을 고소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법치주의 확립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퇴임결심을 굳힌 김 실장이 송사 등 주변 문제를 정리하는 한편, 대외 행사에도 부담없이 참석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통일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권 대사 외에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허 전 부산시장,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후임 비서실장 인선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경우 김 실장의 한시적 유임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답떠 모임’ 친분 여야 원내대표 혼풍불까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새로운 여야관계 형성이 관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을 달리하지만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해오면서 서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개인적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져 정국 전개향배에 초점이 모아진다.

우 원내대표는 2일 유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해 “이완구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못지않게 잘 대화하고 소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동으로 통하는 유 원내대표는 “국정저조로 통하는 유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을 달리하지만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해오면서 서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개인적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전해져 정국 전개향배에 초점이 모아진다. 우 원내대표는 2일 유 원내대표의 당선에 대해 “이완구 의원이 원내대표를

우 원내대표 역시 전임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도출하는 등 여야관계는 합리적 협상파로 통해 여야간 파열음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양당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게다가 유 원내대표가 58년생이지만 생일이 빨라 57년생인 우 원내대표와 2004년 시작된 17대 국회부터 ‘답떠 모임’으로 여야를 넘나드는 친구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게 주변의 전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고,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 초혼 | 추천 회원 | 재혼 |
|--|--|--|
|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출구 70m 44년생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제23기 학생모집

◀ 보건의정부 위탁교육기관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5년 2월 16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00~1:20 / 야간반 오후 6:00~10:20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원서접수시 전형료 : 10,000원

원서접수 ~ 2015년 2월 6일(금)

문의할 곳 062)605-1112, 1023

광신대학교 여자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 교육일시 : 2015년 3월 2일 개강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혜택 :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광신대학교 사모상담전문지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사모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4cm 2매) 1부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

광신대학교 목회자심리상담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 목회자(목사, 강도사, 준목)
◌ 수업형태 : 2년(4학기) / 15주 / 매주 목요일 11:00~15:50
◌ 교육일시 : 2015년 3월 5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4cm 2매) 1부
◌ 혜택 : 한 교회에서 두 분 이상 등록하면 수강료 20% 할인